

고구려 다종족사회 연구의 성과와 새로운 모색*

이정빈**

-
- I. 머리말
 - II. 이종족-속민집단 연구의 흐름과 성과
 - III. 중앙에서 변경으로, 변경인의 관점에서
 - IV. 맺음말
-

I. 머리말

동북아시아의 여러 고대국가와 비교해 고구려의 종족구성은 한층 다양했다. 고구려는 濊貊을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하였지만, 梁貊·小水貊·沃沮·東濊·挹婁·鮮卑 등 주변의 여러 종족과 사회를 통합하며 성장하였다(김현숙, 2007). 三韓·漢四郡의 지배층과 민을 수용하였고, 백제·신라의 영역과 민을 자국의 것으로 흡수하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중원지역의 여러 왕조와 대립·교류하며 적지 않을 수의 漢人을 고구려인으로 받아들였고, 내륙아시아 초원시대 및 만주 수렵지대의 제종족의 일부도 고구려의 세력범위 내에 두고 지속적으로 그

* 본고는 2017년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주관한 한중 신진학자 교류회의 발표문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조교수

를 포섭했다.

이처럼 고구려는 예맥을 중심으로 국가를 형성하였지만, 국가의 성장과 더불어 다양한 종족이 함께 ‘고구려인’을 구성했다. 다종족사회의 면모를 보였던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 사회의 구조와 특징을 온전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러 종족의 통합과 공존, 차별과 저항의 제양상을 폭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고구려 국가체제 정비가 일 단락된 4세기 이후를 중심으로, 다종족사회 연구의 성과를 살펴보고 향후의 과제를 전망해 보고자 한다.

Ⅱ. 이종족-속민집단 연구의 흐름과 성과

고구려 다종족사회에 관한 관심은 조선후기부터 찾아볼 수 있다. 17세기 명청교체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 속에서 조선의 지식인은 만주지역을 주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역의 제종족과 고구려의 관계가 탐구되었다. 예컨대 許穆(1595~1682)은 고구려의 문화 속에 숙신·선비·말갈의 풍속이 섞여 있다고 하면서 숙신·선비·말갈을 東史에 포함하였는데, 이는 한반도를 중심으로 자국사를 인식했던 丁若鏞(1762~1836)도 마찬가지였다(홍성구, 2010).

고구려와 만주지역 제종족의 관계는 근대 일본 동양사학에 의해 보다 자세히 연구되었다.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 1865~1942)가 대표적으로, 그를 중심으로 발간된 『滿鮮地理歷史研究報告』(東京帝國大學文學部, 16권)에서도 관련 연구가 발표되었다. 이들은 이른바 만선사·만주사를 연구하며 그 종족계통과 언어·문화에 주목했고, 이에 따라 숙신·읍루로부터 물길·말갈과 고구려의 관계 사료가 종합적으로 검토되었다.

근대 한국의 민족주의 역사학에서도 고구려와 만주지역 제종족의 관계를 중시하였다. 특히 申采浩(1880~1936)는 비단 만주지역만 아니라 匈奴를 비롯한 내륙아시아 초원지대의 제종족까지 본래 조선인과

동족이었다고 하고, 그 일부가 고구려에 복속되어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1931~ 『朝鮮上古史』). 그런데 일본 동양사학은 물론이고 한국 민족주의 역사학의 연구에서도 사회의 구조나 운영 방식에는 관심이 미치지 않았다.

고구려 다종족사회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는 해방 이후 진척되었다. 해방 이후 한국고대사 연구의 핵심적인 과제는 국가형성·발전단계를 구명하는 데 있었다(한국고대사학회 편, 2007). 이는 일제시기 식민주의 사학(三品彰英, 1940)의 停滯性論을 비판·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고대사회 성립의 지표로 ‘국가’가 주목되었던 것이다. 특히 국왕을 정점으로 한 중앙집권적 국가를 고대국가의 완성으로 간주하고, 그로의 변화를 ‘발전’으로 파악하였다. 고구려사 연구도 마찬가지였다.

예컨대 이외의 ‘이종족’ 역시 중앙집권화의 추이 속에서 연구되었다. 고구려사 속의 이종족은 사료상 屬民으로 칭할 수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 중시한 것은 중앙의 지배 방식과 그 변화였다. 구체적으로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3세기 고구려-동옥저 관계처럼, 3세기까지 공납을 매개로 한 집단적 간접지배의 방식이 여타의 이종족에게도 보편적으로 관철되었다고 파악되었고(임기환, 1987), 「광개토왕비」의 舊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4세기 이후 그 중의 일부가 국왕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는 일반민[公民]으로 전환되었다고 이해되었다(武田幸男, 1989 ; 朱甫暉, 1998 ; 林起煥, 1996 ; 金賢淑, 1999).

이처럼 고구려 사회의 ‘이종족’은 주로 중앙집권적 국가체제 정비란 ‘발전’의 途上 속에서 탐구되었다. 이를 통해 제종족이 고구려인으로 융해된 사실이 밝혀졌지만, 한편으로 제종족의 역사와 그 의미는 간과되기 쉬웠다. 고분벽화를 비롯한 여러 고고자료를 통해 확인되었듯이 고구려 중심부의 문화조차 다양한 색채를 나타냈다. 이로 미루어 보아 고구려의 이종족정책은 단일문화로의 획일적 통합만 아니라 다종족·다문화의 공존이 추구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의 「광개토왕비」 연구(1989)

가 참고된다. 그는 고구려 稗麗 공격의 성과가 部落·營 단위로 나온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이때 營은 천막(帳)으로 구성된 유목·수렵사회의 거주단위를, 부락은 영으로 구성된 종족·취락단위를 의미하는데, 이는 광개토왕이 공파하였다고 한 백제와 동부여 등의 64城·1,400村과 대비된다. 다케다 유키오는 이에 착안하여 고구려의 일반적 지방지배를 城—戶 지배체제로 보고, 이와 구분되는 변경지배를 부락—영 지배체제로 파악하였다.

『삼국사기』 고구려본기를 비롯한 여러 문헌자료에도 부락의 존재를 찾아볼 수 있는데, 부락의 대부분은 변경지대에 위치했다(임기환, 1987). 「광개토왕비」의 부락-영도 변경지대 이종족-속민집단의 취락단위를 가리킨다. 4세기 후반 이후 이종족-속민의 일부는 일반민으로 전환되었지만, 변경지대에서는 이종족-속민이 여전히 존속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고구려의 주요 산업은 농업이었지만, 5세기 이후 그 세력범위 안에는 만주의 수렵지대와 요서·내몽골의 유목지대 일부가 포함되었다. 고구려는 농업사회이면서도 변경지대에는 유목·수렵사회가 존재하였던 것이다. 이 점에서 변경지대의 이종족-속민이 부락-영을 단위로 존속하였던 사실은, 고구려가 생활방식과 사회구조의 차이를 고려했고, 이에 따라 다원적인 사회를 구성한 일면을 보여준다고 이해된다.

이종족-속민의 보다 구체적인 모습은 6~7세기 말갈을 통해 살필 수 있다. 말갈 諸部の 일부는 고구려의 주요 군사력으로 기능했는데, 여전히 부락 단위로 거주하면서 유목·수렵생활을 영위했다(김현숙, 1993). 요서지역의 契丹도 그러하였다고 보인다(이성제, 2005). 그들은 부락의 내부적인 질서를 유지하며 상당한 수준의 자치권을 인정받았다고 이해된다. 「이타인묘지」에서 “于時授公柵州都督兼總兵馬管一十二州高麗統三十七部靺鞨”라고 한 구절은 이러한 측면에서 주목된다.

최근 이타인을 말갈족 출신으로 본 견해도 제시되었는데(안정준, 2013), 그러하다면 대조영의 家系와 더불어 고구려 지배층의 일원으로

편입된 이종족 출신의 사례를 추가적으로 확보하는 셈이다. 향후 보다 면밀한 관심이 요청된다.

Ⅲ. 중앙에서 변경으로, 변경인의 관점에서

이상과 같이 선행 연구를 통해 고구려 이종족—속민지배의 윤곽과 종족구성의 다원성은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아직까지 고구려 이종족—속민지배의 종족적·지역적 차이 및 시기적 변화에 대한 세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개별 사례 연구가 축적될 필요가 있다. 또한 그동안의 연구에서는 중앙집권적 국가체제의 정비과정을 중시한 까닭에 그와 다른 방식의 지배 방식이나 이종족 정책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또한 충분히 생각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자료의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점을 바꾸어 본다면, 어느 정도의 진전은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예컨대 국왕과 같은 중앙권력의 관점이 아니라 이종족—속민의 관점, 다시 말해 변경의 관점에서 고구려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때 관점의 전환이란 것이 단순히 주어와 목적어를 도치하는 데 그쳐서는 곤란하다. 그동안의 연구에서 말갈과 같은 이종족은 한국사의 객체로 취급되었다면(정다함 ; 임지현 외, 2011), 이제 그를 주체로 두고 이종족—속민의 역사를 재조명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변경에 서서 고구려를 바라보는 것이다.

예컨대 『삼국지』 동이전에 보이는 고구려-동옥저 관계를 동옥저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의 성장은 동옥저의 성장에 장애 요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고구려의 지배력 강화는 동옥저의 정치·사회적 불만이 누적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을 것이다. 동옥저인은 고구려를 억압과 수탈의 굴레로, 외적 모순으로 인식하였다고 짐작된다.

3세기 후반 ‘양맥·숙신의 난’은 그러한 측면에서 주의가 요청된다.

양맥·숙신의 난 또한 양맥과 숙신의 관점에서 본다면, 고구려란 외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주체적 행위의 하나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烽上王代(292~300) 國人の 발언에 드러나듯 양맥·숙신의 난은 고구려 국가체제의 위기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3세기 이후 고구려는 영역확장과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이종족—숙민의 군사력을 동원해야만 했는데, 양맥·숙신의 난처럼 이종족—숙민의 불만이 누적되어 그들이 이탈한다면, 이는 영역확장과 성장을 가로막는 국가체제의 위협 요소였을 것이다. 그러므로 고구려의 지배층은 이종족—숙민의 불만을 해소하여 그들을 포섭하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포섭을 위한 반대급부도 예상된다.

이와 같이 본다면, 4세기 후반 이종족—숙민의 일부가 일반민으로 전환된 데에는 이종족—숙민의 정치·사회적 성장과 저항이 하나의 추동력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고구려의 중앙집권화가 추진되면서 이종족—숙민의 사회적 처지가 변화한 것이 아니라, 이종족—숙민의 능동적인 저항의 결과 고구려 사회가 변화한 측면도 있었다는 것이다. 만약 이타인·대조영과 같은 가계가 말갈을 비롯한 이종족 출신이었다고 한다면, 그러한 변화의 폭과 깊이는 상당하였다고 여겨진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신분제로부터 그에 기초한 관료제의 운영까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적지 않다.

5세기 이후 이종족—숙민의 역사 또한 그들의 능동적인 면모를 고려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예컨대 5~7세기 요서지역의 거란, 만주 일대의 말갈 제종족은 대부분 유목·수렵생활을 영위했는데, 따라서 자립적 경제생활이 어려웠다. 농업사회와 일정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했다.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의 일부가 고구려와 정치·군사적 신속관계를 수립한 데에는 제종족의 요구와 선택도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 제종족의 입장에서 고구려는 비자립적 경제생활의 난점을 타개할, 물자의 공급이 가능한 농경사회의 한 곳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고구려와 정치·군사적 신속관계를 수립했다고 해석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 동일한 이유에서 그들의 이탈도 설명할 수 있다고 본다. 교역이나 식량지원이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제종족과 고구려의 정치·군사적 신속관계는 언제든지 변화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가령 6세기 중반 이후 동아시아 국제정세의 긴박한 변화과정 속에서 요서지역의 제종족은 북조의 諸國이나 수·당, 유연과 돌궐 혹은 고구려로의 신속과 이탈을 반복하였는데, 이러한 현상은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역학관계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그에 대한 요서지역 제종족의 이해관계가 반영되었다고 풀이된다.

중원지역의 여러 왕조와 내륙아시아 초원시대 유목세력의 관계가 참고된다. 이를 보면 고구려 역시 중원지역의 여러 왕조처럼 출혈교역마저 감수하고, 때로는 각종 물자를 제공함으로써 그를 포섭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의 이종족정책은 일방적인 지배가 아니라 변경시대 제종족과의 상호관계 속에서 수립·추진된 것으로 이해된다.

IV. 맺음말

이상과 같이 중앙이 아닌 변경의 관점에서 고구려를 본다면, 내적인 사회구조와 변화는 물론이고 국제관계 역시 한층 입체적으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 일단 내적인 사회구조와 변화는 고대사회의 다원적 발전상을 해명하고, 문화의 다양성을 탐색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 국제관계와 관련한 연구에서도 고구려사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사점을 줄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한국사 연구는 그동안의 민족주의적 경향을 비판받았다. 한국사란 국사 체계[一國史, national history] 안에 시야가 갇혀 있었고, 비교 연구에 소홀하였다는 반성이 있었다. 그러한 가운데 서구와 일본의 학계를 중심으로 제시된 ‘동아시아사’가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최근 고구려사 연구에서도 동아시아 내지 동부유라시아란 보다 넓은 범위의 지역단위가 폭넓게 고려되고 있다. 그런데 서구와 일본

학계의 ‘동아시아사’ 논의는 결국 중국사를 중심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한국학계의 일각에서는 ‘동아시아사’란 대안이 근대 일본의 동양사학에서 말했던 만주사와 만선사 혹은 대동아시아와 궁극적으로 어떠한 차별성이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왔다.

주지하다시피 일제시기의 만선사·만몽사 또는 동아시아·대동아시아는 한국사의 타율성을 강조하였다. 그 실증과 논리의 문제는 이미 누누이 지적되었지만, 많은 경우 외형적인 역사체계의 문제에 비판의 초점이 모아졌다. 그러나 그의 근원적인 문제는 중심부와 주변부를 구분하고, 이를 차별적으로 바라보았던 제국주의적 시각[Imperial Eyes]에 있다고 생각한다.

만선사·만주사를 넘어선 새로운 동아시아사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이제 제국 내지 강국만 아니라 주변부로 간주되어 온 국가 내지 지역의 역사와 관점이 중시되어야 한다고 전망한다. 이 점은 고구려사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고구려를 예맥과 이종족으로 구분해 왔던 연구경향을 반성하고, 다종족사회의 관점에서, 변경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한다고 제언한다. 고구려사 연구에서부터 다종족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변경의 관점을 중시하여야, 고구려에서 동아시아를 바라보는 연구도 보편성을 획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제어 : 고구려, 이종족, 속민, 다종족사회, 동아시아사

[투고일: 2018.10.15, 게재확정일: 2018.11.30.]

【참고문헌】

- Lattimore Owen, 1940, *Inner Asian Frontiers of China*, New York: American Geographical Society
- 金貞培, 1973, 『韓國民族文化의 起源』, 高麗大學校出版部.
- 김락기, 2013, 『고구려의 東北方 境域과 勿吉 靺鞨』, 景仁文化社.
- 金賢淑, 1989, 「廣開土王碑를 통해 본 高句麗守墓人의 社會的 性格」, 『한국사연구』 65.
- 金賢淑, 1992 「高句麗의 靺鞨支配에 관한 試論的 考察」, 『韓國古代史研究』 6.
- 김현숙, 2005, 『고구려의 영역지배방식 연구』, 모시는 사람들.
- 김현숙, 2007, 「고구려의 종족기원과 국가형성과정」, 『대구사학』 89.
- 김현숙, 2015, 「고구려 수묘제 연구의 현황과 쟁점」, 『국학연구』 26.
- 노태돈, 1999, 『고구려사 연구』, 사계절.
- 노태돈, 2009, 『한국고대사의 이론과 쟁점』, 집문당.
- 李成市, 2009, 「동아시아에서 고구려의 문명사적 위상」, 『사람』 34.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史と東アジア—「廣開土王碑」研究序說—』, 岩波書店.
- 朴京哲, 1996, 『高句麗의 國家形成 研究』, 高麗大學校 博士學位論文.
- 朴京哲, 2003, 「高句麗 ‘民族’問題 認識의 現況과 課題」, 『韓國古代史研究』 31.
- 박경철, 2003, 「高句麗 異種族支配의 實相」, 『韓國史學報』 15.
- 朴京哲, 2005, 「高句麗 邊方의 擴大와 構造的 重層性」, 『韓國史學報』 19.
- 濱田耕策(梁承燾 譯), 2005, 「高句麗의 異種族 統治-4·5세기를 중심으로-」, 『고구려발해연구』 21.
- 白鳥庫吉, 1970, 『白鳥庫吉全集 第4卷—塞外民族史(上)—』, 岩波書店.
- 三品彰英, 1940, 『朝鮮史概說』, 弘文堂書房.
- 안정준, 2013, 「『李他仁墓誌銘』에 나타난 李他仁의 生涯와 族源-高句

- 麗에서 활동했던 柵城지역 靺鞨人의 사례-, 『목간과 문자』 11.
- 여호규, 2014, 『고구려 초기 정치사 연구』, 신서원.
- 王綿厚·李建才, 1990, 『東北古代交通』, 沈陽出版社.
- 李在成, 1996, 『古代東蒙古史研究』, 法仁文化社.
- 日野開三郎, 1991, 『日野開三郎 東洋史學論集 15卷—東北アジア民族史(中)—』, 三一書房.
- 이성제, 2005,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 이성제, 2005, 「高句麗와 契丹의 關係—對隋·唐戰爭期 契丹의 動向과 그 意味—」, 『북방사논총』 5.
- 李成制, 2015, 「高句麗와 투르크계 北方勢力의 關係—이해의 方向과 연구방법에 대한 모색—」, 『고구려발해연구』 52.
- 林起煥, 1987, 「고구려 초기의 지방통치 체제」, 『慶熙史學』 14.
- 임기환, 1996,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民’의 성격」, 『고구려연구』 2.
- 임기환, 2004, 『고구려 정치사 연구』, 한나래.
- 임기환, 2011, 「고구려는 다종족 국가였다」, 『내일을 여는 역사』 44.
- 임지현 편, 2004, 『근대의 국경 역사의 변경』, 휴머니스트.
- 임지현 외, 2011, 『근대 한국, 제국과 민족의 교차로』, 책과함께.
- 井上直樹, 2003, 「『韓暨墓誌』を通してみた高句麗の對北魏外交の一側面—六世紀前半を中心に—」, 『朝鮮學報』 178.
- 조영광, 2012, 『고구려 초기의 국가 형성』, 경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朱甫墩, 1998, 『新羅 地方統治體制의 整備過程과 村落』, 신서원.
- 토마스 바필드 지음, 윤영인 옮김, 2009, 『위대한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 하자노프(김호동 譯), 1990, 『遊牧社會의 構造』, 知識産業社.
- 護雅夫, 1967, 『古代トルコ民族史研究』 1, 山川出版社.
- 홍성구, 2010, 「만주 역사를 바라보는 한국적 시각의 한 모색—許穆과 丁若鏞의 만주 諸種族 인식을 端緒로—」, 『역사와 담론』 55.